

Q5

우리나라 역대 최대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은 어떻게 복원했나요?

A 2000년 4월 7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고성군, 강릉시, 동해시, 경상북도 울진군에 걸쳐 동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약 82배인 총 23,794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.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민관학연공동조사단 176명이 생태, 사회·경제적 측면, 복원방법 평가 등 9개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고, 복원 절차와 의사결정 흐름도를 만들어 복원작업을 수행했습니다. 당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두 차례의 협의회와 네 차례의 지역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안전, 송이생산, 경관복원 등 사회정책적 요소를 우선 고려하고, 복원방법 선정 시 피해 정도와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조림복원 51%, 자연복원 49%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. 이때 만든 복원절차와 의사결정흐름도는 그 후 거의 모든 산불피해지의 복원모델이 되었습니다.